

### 좋아지는 중남미 시장여건

중남미 시장 여건이 2004년에는 다소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 중남미 경제는 최근 6년 동안 침체를 면치 못했지만 2004년 및 2005년에는 이를 벗어나 회복의 길로 접어들 것이라는 스페인상공회의소의 전망에 따른 것이다.

스페인상공회의소가 중남미 14개국 4254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4년 사업 전망이 가장 좋은 국가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콜롬비아 등이고 별로 좋지 못한 국가는 베네수엘라, 도미니카공화국, 멕시코 등이다.

정보출처: www.kotra.or.kr

가장 큰 회복의 동력은 수출증대로 전반적인 중남미 외국의 평가절하가 계속됨에 따라 수출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칠레는 2004년 투자 전망이 가장 좋은 국가로서 특히 외국인투자 유치가가 장 활발하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칠레, 페루, 나리카라 등의 기업체는 2004년 전망을 평균 이상으로 낙관시하는 반면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도미니카공화국, 베네수엘라의 기업체는 전망을 평균 이하로 하고 있다.

### 캐나다에 온라인 쇼핑 전성기 도래

캐나다에서 온라인 쇼핑이 작년말 쇼핑시즌을 시발점으로 해서 크게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IDC Canada에 의하면 2003년 캐나다의 e-tailing 시장은 제작년에 비해 24% 증가한 C\$100억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캐나다의 e-tailing 시장은 발달된 인터넷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각광 받지 못했다. 이는 소매업체가 자사 인터넷 쇼핑 사이트의 편의성을 무가치시키지 못해 소비자의 관심을 끌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03년에는 전자 결

제의 신뢰성이 제고되고, 연말에 각 소매업체도 쇼핑 편의성 도모를 위해 쇼핑 사이트를 새롭게 단장하는 등 연말을 기점으로 e-tail 시장이 크게 부상했다. 특히 실제 구매 이전에 상품 조사를 하는 인터넷 윈도우 쇼핑이 크게 증가해 연말 쇼핑 시즌이 시작되는 10월, 인터넷 쇼핑 사이트를 찾는 소비자는 전년동기대비 10.6% 증가한 1510만명으로 집계되었다.

정보출처: www.kotra.or.kr

### 네덜, 통신시장 개방 모색

네덜 정보통신부는 통신규제법(99년 제정)에 의한 통신시장 보호정책이 통신산업 발전에 장애가 된다고 판단, 2004년부터 점진적으로 통신사업자 면허 제도를 완화, 통신시장을 개방한다는 방침하에 각종 세급 인하 및 요금체계 개선 등을 통해 외국기업들의 투자를 유인함으로써, 핵심유 네트워크 등 정보고

속도 건설을 통한 통신 인프라 구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네덜 통신관계자들은 이번 통신시장 개방정책으로 네덜 통신시장이 NTC·UTL 등 인도계 국영 통신회사의 독점 체제에서 벗어나 국내외 업체가 참여하는 자유 경쟁체제로 변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보출처: 국가정보원

### 호주, IT 및 디지털기기 구매열

호주 달러화의 급등 및 내수경기의 호조를 기반으로 호주 소비자의 디지털 구매에 피크를 이루고 있다. 호주 소비자들이 금년도에 구매할 Digital camera, DVD Players, Digital TV, Games consoles, Printers, Scanners 등 디지털 기기들의 구매액은 무려 15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2년전 동기대비 두 배, 전년동기대비 25%가 늘어난 것이다.

호주 달러화 강세 및 메이커들의 경쟁으로 가격은 지난 3년간 오하려 하락하였으며 따라서 Unit을 기준으로 한 판매량은 훨씬 더 많이 증가하였다. 현재 디지털 카메라는 가장 필수품으로 정착하고 있으며 부동산경기 활성화로 가구 및 가정용품 소비가 급증하는 가운데 홈세어터에 대한 수요 판매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정보출처: www.kotra.or.kr

### 日 인터넷 전자상거래 고령층 이용도 높아

일본경제 리서치가 최근 실시한 일본내 인터넷 전자상거래 이용자 실태조사에 의하면, 전자상거래 이용자의 연간 평균 지출액이 1만2300엔에 달했으며, 이중 연령대별로 60대 고령자층의 인터넷 전자상거래 이용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있다.

60대 고령자층은 전자상거래를 통해 연간 평균 2만5600원을 지출, 전체 평균에 비해 2배 이상의 인터넷 통신판매에 이용도를 보였다. 거동이 불편한 연금생활자 등 고령층 소비자들이 처음에는 인터넷 전자상거래에 대해 불

안해하거나 거부 반응을 보이나 일단 한번 이용하면 후 마우스 몇 번 클릭하면 자택으로 알까지 신속하게 배달돼 오는 인터넷 통신판매의 편리성에 매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60대 고령자층의 인터넷 전자상거래 이용자 수도 최근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초고속 인터넷 회선의 보급과 더불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고령자 대상 인터넷 교육 프로그램 등에 힘입어 여타 연령층에 비해 빠른 증가 추세를 보였다.

정보출처: 디벨 리서치/ www.kotra.or.kr